
I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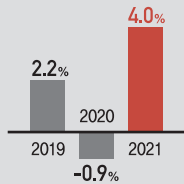
| | |
|------------|----|
| 1. 실물경제 | 3 |
| 2. 금융·외환시장 | 16 |

2021 한국경제

성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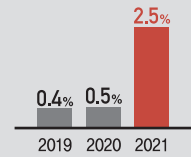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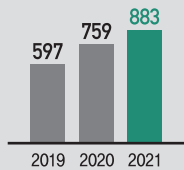
2.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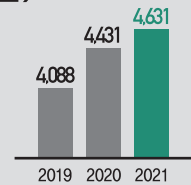
경상수지

883억 달러(흑자)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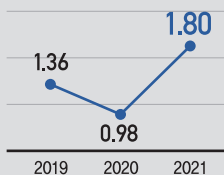
4,631억 달러



금리(연말 기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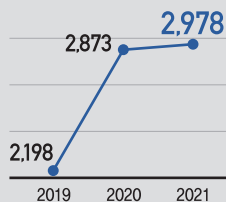
국고채(3년)



주가(연말 기준)

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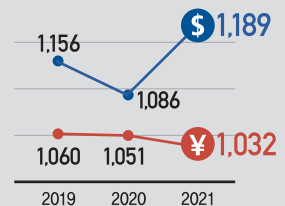
KOSPI



환율(연말 기준)

\$ 1,189 원/달러

¥ 1,032 원/100엔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상승

2021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중 미국의 경기부양책(6차) 시행 및 대규모 인프라투자 계획 발표²²⁾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²³⁾ 2/4분기 들어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²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반락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가시화²⁵⁾ 및 글로벌 공급병목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11월 이후 연말까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²⁶⁾ 등이 엇갈리며 등락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ECB의 통화정책 정상

화 움직임²⁷⁾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신흥국의 EMBI+ 가산금리는 선진국의 장기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등락하는 가운데 1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우려 및 일부 취약신흥국의 금융불안²⁸⁾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 - 20. 주요국 국채금리 및 EMBI+ 가산금리



자료: Bloomberg, JP Morgan

22) 바이든 정부는 약 1.9조 달러 규모의 제6차 재정지원법(American Rescue Plan)을 시행(3월 11일)하였으며, 곧이어 약 2.2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안(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다(3월 31일).

23) 3월 31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연중 최고치인 1.74%를 기록하였다.

24) 미 연준은 4월 FOMC 회의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더 진전될 때까지 기존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에 대해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4월 28일).

25) 8월 18일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향후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2021년 중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26) 미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150억 달러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폭을 확대(매월 150억 달러 → 300억 달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가 2022년 중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9월 회의에서는 18명 중 9명이 금리 인상을 전망)하였다(12월 15일).

27)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21~23년 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PEPP(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를 예정대로 2022년 3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12월 16일).

28) 터키는 높은 물가상승률(CPI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2020년 12월 14.6 → 2021년 8월 19.3 → 12월 36.1)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9~12월 중 500bp)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 가치가 급락(미 달러화에 대해 9~12월 중 37.2% 절하)하고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표 1-9. 주요국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 | 2020 | | 2021 | | |
|------------------------------|-------|-------|-------|-------|-------|
| | 3월 | 6월 | 9월 | 12월 | |
| 국제금리(10년물) | | | | | |
| (미국) | 0.91 | 1.74 | 1.47 | 1.49 | 1.51 |
| (독일) | -0.57 | -0.29 | -0.21 | -0.20 | -0.18 |
| 리스크 프리미엄 | | | | | |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 222 | 203 | 189 | 188 | 186 |
| (신흥국 CDS 프리미엄) ²⁾ | 150 | 186 | 156 | 182 | 187 |
| (신흥국 가산금리) ³⁾ | 338 | 370 | 356 | 373 | 386 |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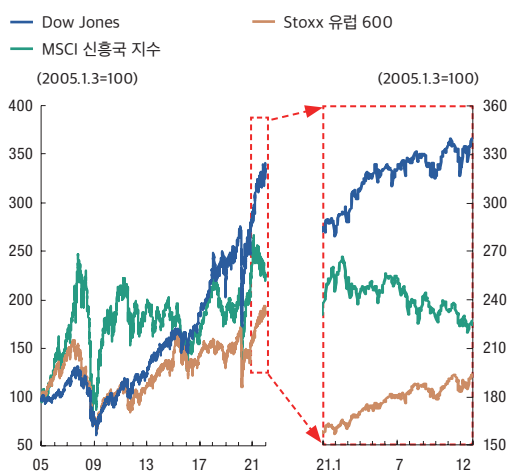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 움직임 차별화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1/4분기 중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강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²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³⁰⁾. 다만 9월 중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³¹⁾ 등의 영향으로, 11월 하순에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도 미국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년 말 대비 22.2% 상승하였다.

반면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투자심

리 약화, 낮은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및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 우려³²⁾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4.6% 하락하였다.

그림 1-21.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2021년 중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³³⁾. 미 달러화는 1/4분기 중 미국 장기금리 상승 및 경기회복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4-5월에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및 유로지역 경기개선 전망³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로지역

29)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각각 87%, 86%, 82%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30) 미 다우지수는 2021년 말 36,338를 기록하여 전년 말(30,606) 대비 18.7% 상승하였다.

31) 9월 FOMC 회의에서 2022년 및 2023년 중 정책금리 인상을 전망한 참석자가 6월 회의 당시에 비해 각각 2명(7명 → 9명) 및 4명(13명 → 17명) 증가하였다(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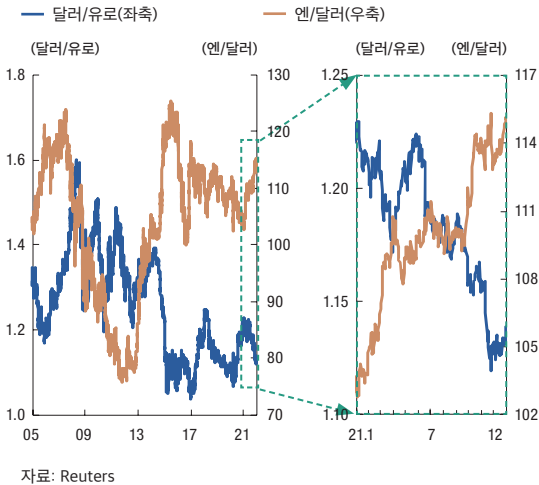
32) 6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영업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과도한 차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헝다그룹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12월 7일 주요 신흥평가사들은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다.

33) 연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유로화에 대해서는 7.4%, 엔화에 대해서는 11.7% 절상되었다.

34)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중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을 전망을 상향조정하였다(3.8% → 4.3%, 5월 12일).

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및 경기회복세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림 1 - 22.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장기금리 큰 폭 상승

2021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³⁵⁾. 시기

별로 보면 3월 중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5월 말 국내 경제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³⁶⁾,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재차 상승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 속도둔화와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³⁷⁾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하반기 들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을 반영해 나가면서 상승하였다.

회사채(3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는 하반기 들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비우량물 위주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6월 중순 국고채 지표물 교체³⁸⁾ 영향으로 큰 폭 축소된 이후 우량물(AA-)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한 반면, 비우량물(A-)은 높은 금리 유인과 수익추구 성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하반기에는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0월 들어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용채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연말에는 기관들의 북클로징으로 인한 매수세 부진 등이 더해지며 확대 폭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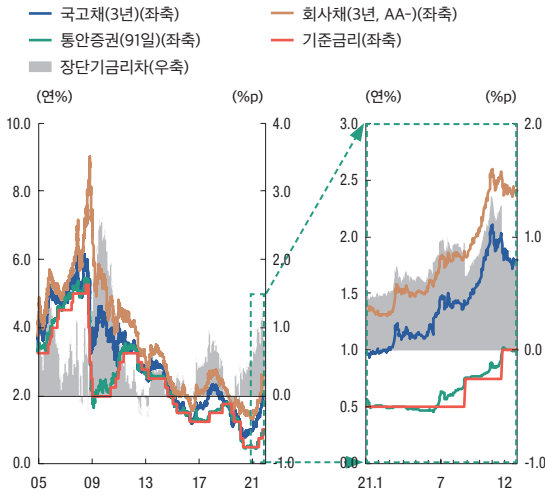
35) 2021년 말 1.80%로 2020년 말(0.98%) 대비 82bp 상승하였다.

36)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4.0%(5월, 한국은행)로 상향 조정(3.0%, 2월)하였다.

37) 한국은행은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8일)하였으며,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11월 5일)하였다.

38) 6월 10일 신용스프레드 산정 기준이 되는 국고채(3년) 지표물 변경 이후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신용스프레드가 10bp 축소되었다. 이는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잔존만기가 6개월 더 긴 신지표물의 선호가 낮아 국고채(3년) 금리가 일시에 크게 상승(9월 1.14% → 10월 1.28%)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1 - 23.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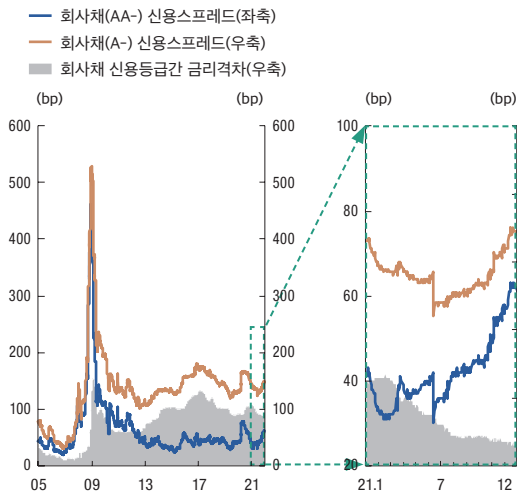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은행 여수신금리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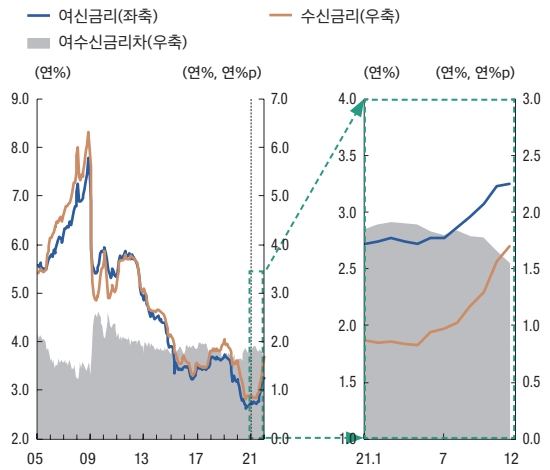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2021년 12월 중 여신금리는 3.25%로 2020년 12월(2.74%)에 비해 0.51% 포인트 상승하였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가 2021년 12월 중 3.14%로 전년동월대비 0.4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금리는 0.87% 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하였다³⁹⁾. 2021년 12월 중 은행 수신금리는 1.70%로 2020년 12월(0.90%)에 비해 0.80% 포인트 상승하였다. 여수신금리차는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당폭 축소되었다.

그림 1 - 2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1 - 25. 은행 여수신금리¹⁾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39)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등에 영향 받아 기업대출금리보다 큰 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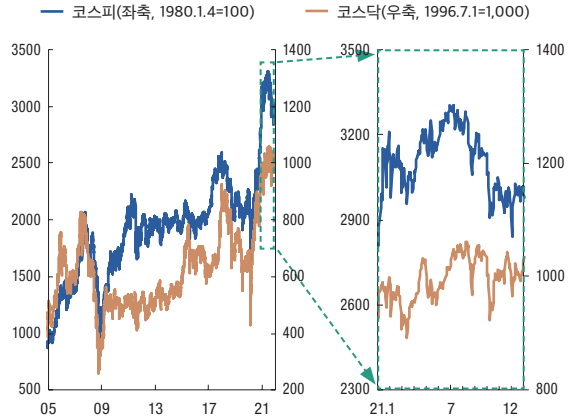
(2) 주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후 하락 전환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로 글로벌 요인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에는 미국 신정부의 재정책대 기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다소 조정받았다. 3월 하순부터는 국내외 경제 지표 개선 및 기업실적 호조 기대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재차 상승하여 7월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7월 6일 3,305)하였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 양호한 수출실적 및 국내외 기업 실적 호조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반도체 업황 둔화,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⁴⁰⁾하면서 연간으로는 2020년 말(2,873)에 비해 3.6% 상승한 2,978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하여 2020년 말(968) 대비 6.8% 상승한 1,034로 마감하였다.

그림 1 - 26.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및 비은행 수신 증가폭 확대

은행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은 2020년에 비해서는 증가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예비적 동기 및 투자대기자금 수요 등으로 예년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기예금은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타펀드에 대한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형 펀드는 하반기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직접투자 축소 등으로, 채권형 펀드는 전년 크게 확대되었던 신용 경계감의 완화 등으로 상당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다만 MMF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다.

40) 2021년 11월 30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연중 최저치(2,839)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 금리 메리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다.

표 1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은행 수신 ¹⁾ | 79.5 | 91.6 | 106.3 | 188.4 | 198.5 |
| 수시입출식 | 34.0 | 10.9 | 65.9 | 189.3 | 131.0 |
| 정기예금 | 28.8 | 72.2 | 48.3 | -14.4 | 41.8 |
| 시장성수신 ²⁾ | 17.7 | 7.8 | -14.6 | 14.6 | 33.9 |
| 자산운용회사 | 27.9 | 53.8 | 98.6 | 42.2 | 93.9 |
| MMF | -7.0 | -7.7 | 15.2 | 21.0 | 9.6 |
| 주식형펀드 | 4.2 | 7.3 | 2.5 | -10.0 | 18.2 |
| 채권형펀드 | -8.6 | 6.4 | 15.7 | -0.4 | 13.0 |
| 기타펀드 ³⁾ | 39.3 | 47.8 | 65.2 | 31.5 | 53.0 |
| 상호저축은행 | 6.9 | 8.6 | 6.1 | 13.2 | 23.3 |
| 신용협동기구 ⁴⁾ | 44.6 | 39.7 | 60.7 | 50.1 | 69.4 |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혼합형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높은 증가세 지속

2021년 중 기업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2020년과 비슷한 규모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은행권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대기업대출도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증가하였다. 비은행권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도 2020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증가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되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되고 기타금융기관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⁴⁾에도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에 그쳤으나 기타대출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에 더해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의 이동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도 생활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전년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1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기업대출 | 72.2 | 81.8 | 90.2 | 169.6 | 171.5 |
| 은행 | 40.4 | 46.7 | 47.7 | 110.8 | 94.1 |
| 대기업 | -3.7 | 6.9 | -1.8 | 20.9 | 9.0 |
| 중소기업 | 44.0 | 39.8 | 49.4 | 90.0 | 85.1 |
| 비은행 ¹⁾ | 31.8 | 35.1 | 42.5 | 58.8 | 77.4 |
| 가계대출 ²⁾ | 100.0 | 76.8 | 58.3 | 127.1 | 123.8 |
| 예금은행 | 43.3 | 52.4 | 54.6 | 82.2 | 60.2 |
| (주택담보대출) | 21.6 | 30.1 | 39.7 | 49.9 | 45.7 |
| (기타대출) | 21.6 | 22.4 | 14.9 | 32.2 | 14.6 |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 22.6 | 6.8 | -4.5 | 7.6 | 27.6 |
| (주택담보대출) | 10.8 | -3.9 | -10.4 | -4.0 | 9.2 |
| (기타대출) | 11.8 | 10.7 | 6.0 | 11.6 | 18.4 |
| 기타금융기관 등 ⁴⁾ | 34.1 | 17.5 | 8.1 | 37.4 | 36.0 |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1)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년 4월 29일, 금융위 발표)」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1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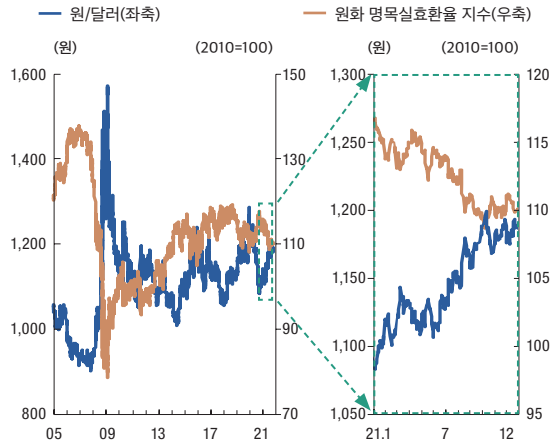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은 1~5월 중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양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전년 말보다 높은 수준인 1,100~1,140원 사이에서 등락하였다. 6월 이후에는 델타 변이 확산,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부각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대규모 매도,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외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10월 12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1,198.8원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기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수 등에 따른 국내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2021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88.8원으로 2020년 말(1,086.3원) 대비 9.4% 상승하였다.

한편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일 금리차 확대 등에 따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기대 등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2021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0년 말(116.8) 대비 5.9% 하락한 109.9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7.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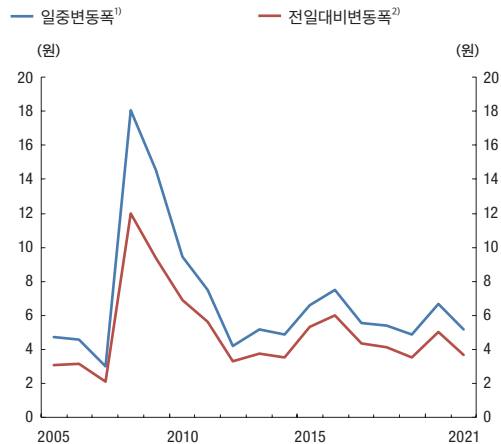


주: 1)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증가,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IS 발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BIS

한편 2021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일평균 5.2원 및 3.6원으로 2020년(각각 6.6원 및 5.0원) 대비 축소되었다.

그림 1 - 28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 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상승

외환스왑레이트⁴²⁾(3개월)는 2021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투자 관련 외화자금 공급 등 상승요인과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 미국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등락하다가 6월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국내은행의 양호한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11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국내기업의 선물환 매입 관련 외화자금 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여⁴³⁾ 2021년 말에는 2020년 말(-0.04%) 대비 0.71% 포인트 상승한 0.67%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⁴⁴⁾(3년)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 및 스왑레이트 상승, 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목적 외화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가 2021년 말에는 2020년 말(0.31%) 대비 0.88% 포인트 높은 1.19%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9.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주), 한국 플랫폼레븐 외국환중개(주)

42)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43) 12월 중에는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 등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외환스왑레이트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4)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리보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QR BOX



QR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3월)



QR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6월)



QR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9월)



QR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



QR 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년 3월)



QR 6

지역경제보고서
홈페이지